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

의안 번호	1333
----------	------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22 일

발 의 자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1. 주 문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17.1.5~2017.3.31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광진문화재단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판단함.

3. 건 의 안

안형구 본부장은 광진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1년여 동안 재단의 운영을 태만히하여 예산낭비 및 회계부정, 인사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문화재단 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하여 할 책임이 있는 안형구 본부장의 개인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로 문화재단의 계약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문화재단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더 이상 본부장 직위를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광진문화재단 정관 12조(임원의 해임)에 의거 안형구 본부장은 해임 해야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안형구 본부장은 2016년 4월에 임명되어 재단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신분으로서,

안형구 본부장은 누구보다 문화재단의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직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의회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문서 끼워 넣기, 문서 변조 등 부당한 지시를 강요함으로써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내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직원들이 자진 퇴사하는 등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료 요구권을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평소 토우기획 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 추진실적이 전무한 자본금 500만원의 BS아트(대표 김근영)와 팝아트 팩토리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S아트에서는 작가들에게 제공할 미술용품등을 공간테크(대표 토우기획 김준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특수관계인들과의 유착의혹을 야기시켰고 소속 작가들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근거도 없이 지급토록 강요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등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으로 투명한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부당한 지시와 직원간 갈등 야기로 설립 1년여 기간동안 정원 16명중 11명이 퇴사하는등 재단의 명예를 실추 시켰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광진문화재단 본부장의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게 된 것임.